

쿰란 사본과 다윗 전승

송창현*

1. 머리말

히브리어 성서에서 다윗은 아브라함, 모세, 아론 등과 함께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며 탁월한 시편 작가이며, 유대인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1947년 쿰란 사본이 발견된 이후 제2차 성전 시대 유다이즘의 다윗 전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 학자들은 쿰란 사본에 나타난 다윗과 관련 있는 성서 구절의 인용과 해석의 방식, 쿰란 공동체 안에서 다윗 전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신약학

1) C. Thoma, "David II," *TRE* 8 (1981), 384-387; D. M. Howard, Jr., "David", *ABD* 2 (1992), 41-49; K. Pomykala, *The Davidic Tradition in Early Judaism: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for Messianism* (Atlanta: Scholars Press, 1995); G. J. Brooke, "Kingship and Messianism in the Dead Sea Scrolls," J. Day, ed., *King and Messiah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434-455; K. R. Atkinson, "On the Herodian Origin of Militant Davidic Messianism at Qumran: New Light from Psalm of Solomon 17," *JBL* 118 (1999), 435-460; W. F. Schniedewind, "The Davidic Dynast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Qumran Literature," L. H. Schiffman, et al., eds.,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Proceedings of the Jerusalem Congress, July 20-25, 1997*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82-91; K. R. Atkinson, *I Cried to the Lord: A Study of the Psalms of Solomon's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Setting* (Leiden: Brill, 2004).

다.²⁾

우리는 쿵란 사본에 등장하는 다윗 전승의 기원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다윗이 언급되어 있는 쿵란 사본 본문에 대한 비평적 분석 작업에서 출발할 것이다. 쿵란 사본에서 다윗은 총 31회 언급된다³⁾: CD V 2. 5; CD VII 16; 1QM XI 2; 4Q161 8-10 17; 4Q174 1-2 i 7. 11. 12. 13; 4Q177 5-6 7; 4Q177 12-13 i 2; 4Q252 V 2. 4; 4Q285 7 3; 4Q397 14-21 10; 4Q398 11-13 1; 4Q398 14-17 ii 1; 4Q457b II 2; 4Q479 1 4. 5; 4Q504 1-2 iv 6²; 4Q522 22-25 1. 4; 6Q9 22 4; 11Q5 XXVII 2; 11Q5 XXVIII 3. 13; 11Q11 V 4; 11Q13 II 10; 11Q14 1 i 7.

그리고 우리는 쿵란 사본에서 언급되는 다윗 전승이 히브리어 성서의 다윗 전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쿵란 사본이 성서적 다윗 전승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지, 쿵란 공동체가 다윗 전승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 전승과 관련된 쿵란 공동체의 해석학적 특징과 독창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성서적 다윗 전승

쿵란 사본의 다윗 전승은 우선적으로 성서 본문에 기초한다. 즉 역사적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인 사무엘에 의한 다윗의 기름 부음,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골리앗과의 전투, 예루살렘과 다윗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⁴⁾ 쿵란 사본에서 이와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

2) P. W. Flint, "David,"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78.

3) M. G. Abegg, *The Dead Sea Scrolls Concordance, I* (Leiden: Brill, 2003), 190.

보면 다음과 같다.

2.1. 다윗의 기름부음

샌더스(J. A. Sanders)는 쿠파란의 제11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사본들을 11Q5(Ps^a)라는 제목으로 1965년 DJD 4권에 발표하였다.⁵⁾ 이 사본들은 기원전 1세기 초반에 필사된 것이다. 특히 위경 다윗 시편인 151편에 해당하는 11Q5 XXVIII 3-14에는 다윗의 생애가 요약되고, 특히 사무엘에 의한 다윗의 기름부음이 묘사된다: “나를 성유로 기름 부었다. 그분은 나를 당신 백성의 지도자로, 당신 계약의 자녀들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것은 1사무 16:1-13과 관련된 다윗 전승이다. 11Q5의 본문은 다윗에 대한 하느님의 선택이 강조된다.⁶⁾

2.2. 다윗의 언약

기원전 150년경에 필사된 4Q504의 공식판은 바이에(M. Baillet)에 의해 DJD 7권에 발표되었다.⁷⁾ 4Q504 1-2 iv 5-8에는 다윗의 선택과 언약이 언급된다:

“당신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다윗은 목자요 당신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당신 면전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도록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4) C. Coulot, “David à Qumrân,” L. Desrousseaux and J. Vermeylen, eds., *Figures de David à travers la Bible* (Paris: Cerf, 1999), 317.

5) J. A. Sanders, *The Psalms Scroll of Qumrân Cave 11(11QP^a)*, DJD IV (Oxford: Clarendon Press, 1965).

6) C. Coulot, “David à Qumrân,” 342.

7) M. Baillet, “4Q504(Paroles des Luminaires^a),” *Qumrân grotte 4.III* (4Q482-Q520), DJD VII (Oxford: Clarendon Press, 1982), 137-168.

이 본문은 2사무 5:1-5과 1역대 11:1-3과 관련된다. 이들 성서 구절에 의하면 다윗은 헤브론으로 찾아온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나 4Q504에서는 다윗이 아니라 하느님이 언약을 맺는다. 하느님이 다윗과 맺는 언약은 2사무 7장에서 나단에게 행한 약속이다.⁸⁾

2.3. 골리앗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는 쿵란 사본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1QM XI 1-2; 2Q22; 4Q372 frg. 19; 4Q373 frg. 1-2; 11Q5 XXVIII 13-14). 전쟁 규칙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강한 용사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느님의) 종 다윗의 손에 넘어갔다. 왜냐하면 그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사실 전투는 당신의 것이다.

1947년에 쿵란의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 전쟁 규칙서(1QM)는 수케닉(E. L. Sukenik)에 의해 발표되었다.⁹⁾ 이 사본의 저작 시기는 기원전 2세기 중반에서 1세기 초경으로 추정되며, 필사 시기는 기원전 1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전쟁 규칙서는 기원전 100년경에 최종 편집되었을 것이다.

1QM XI 1-2의 칼과 창에 대한 언급은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1사무 17:45),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1사무 17:47)와 관련된다. 골리앗에 대한

8) C. Coulot, “David à Qumrân,” 328.

9) E. L. Sukenik, *The Dead Sea Scrolls of the Hebrew University* (Jerusalem: Hebrew University/Magnes Press, 1955).

다윗의 승리는 그가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¹⁰⁾

2.4. 예루살렘의 다윗

예루살렘과 관련된 다윗 전승은 4Q522에서 언급된다. 이 사본의 공식판은 뤼에쉬(É. Puech)가 DJD 25권에 발표하였다.¹¹⁾ 이 사본의 필사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중반경이다.¹²⁾ 그리고 이 사본에는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조 등의 주제를 다루는 시편 122편이 인용된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시온의 돌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강조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더럽힌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¹³⁾ 특히 4Q522 frg. 9 ii 1-14에는 다윗의 출생과 통치, 예루살렘의 시온의 돌과 성전 건립을 위한 계획이 언급된다.

보라,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 이세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는] 시온의 돌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아모리인들을
내쫓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
이다.

10) C. Coulot, “David à Qumrân,” 342.

11) É. Puech, “4Q522 [Prophétie de Josué (4QApocrJosué?)],” *Qumran Cave 4.XVIII: Textes hébreux (4Q521-4Q528, 4Q576-4Q579)*, DJD XXV (Oxford: Clarendon Press, 1998), 55-56; É. Puech, “Fragments du Psaume 122 dans un manuscrit hébreu de la grotte IV,” *RQ* 9 (1978), 547-554; É. Puech, “La pierre de Sion et l’autel des holocaustes d’après un manuscrit hébreu de la grotte 4 (4Q522),” *RB* 99 (1992), 676-696; É. Puech, “Les Esséniens et le temple de Jérusalem,” J.-C. Petit, ed., *Où demeures-tu?: La maison depuis le monde biblique. En hommage au professeur Guy Couturier à l’occasion de ses soixante-cinq ans* (Montréal: Fides, 1994), 263-287.

12) É. Puech, “4Q522 [Prophétie de Josué (4QApocrJosué?)],” 70.

13) É. Puech, “4Q522 [(Prophétie de Josué (4QApocrJosué?))],” 71.

3. 다윗 전승의 재해석

성서에 나타난 역사적 다윗에 대한 전승은 쿨란 공동체에 의해 다양하게 재해석되었다. 즉, 쿨란 공동체는 성서적 다윗 전승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다윗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쿨란 공동체는 성서적 전승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학적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3.1. CD V 1-6

성서적 다윗 전승에 대한 쿨란-에세네파의 재해석이 잘 드러나는 작품 중 대표적인 사본이 다마스쿠스 문헌(=CD)이다. 이 문헌의 필사본들은 1896년 에집트 카이로의 에즈라 회당 게니자에서 셰히터(S. Schechter)에 의해 발견되었다.¹⁴⁾ 그 후 약 50년이 지나서 쿨란에서 동일한 문헌의 다른 사본들이 제4, 5, 6동굴에서 발견되었다(4Q266-273,¹⁵⁾ 5Q12,¹⁶⁾ 6Q15¹⁷⁾). 이 사본들에 대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들의 연구에 따르면,¹⁸⁾ CD의 저작 연대는 기원전 2세기

14) S. Schechter, *Documents of Jewish Sectaries, vol. I. Fragments of a Zadokite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0).

15) J. M. Baumgarten and J. T. Milik, "4Q266-273 (The Damascus Document)," *Qumran Cave 4.XIII: The Damascus Document (4Q266-273)*, DJD XV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6).

16) J. T. Milik, "5Q12," M. Baillet, et al., *Les 'petites grottes' de Qumrân*, DJD III (Oxford: Clarendon, 1962), 181.

17) M. Baillet, "6Q15," DJD III (Oxford: Clarendon, 1962), 128-131.

18) CD에는 그 저작 연대를 추정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 CD XVI 3-4는 이미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쓰여진 희년서가 "희년들과 주간들에 따른 시간 구분의 책"으로 소개된다. 그리고 CD XIX 35-XX 1과 XX 13-14에 따르면 "정의의 스승"은 이미 죽은 것으로 소개된다. 한편 쿨란에서 발견된 CD의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4QD^a(4Q266)는 기원전

말이나 기원전 1세기 초경이다. 즉, CD는 1QS, 1QM, 1QH^a보다 조금 후대에 저작되었다.¹⁹⁾

다윗 전승에 대한 쿰란-에세네파의 재해석이 잘 드러나는 본문은 CD V 1-6이다.

지도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사실 다윗은 언약궤 안에 있던 율법의 봉인된 책을 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책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아스다롯을 섬겼던 원로들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에서 개봉되지 않았고, 그 책은 사독이 올 때까지 감추어져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야의 죽음을 제외하고 다윗의 행동들은 찬양받았다. 하느님은 그를 용서하셨다.

이 본문은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벨리알의 세 개의 함정²⁰⁾ 즉, 음행, 부(富), 성전의 세속화(CD IV 13-19)에 대한 언급이라는 맥락 안에 위치한다. CD의 저자는 반대자들을 “성벽의 건축가들”로 표현하며 비판한다. 즉 그들은 결혼,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있어 율법의 가르침(창세 1:27; 신명 17:17)을 어겼다. 그런데 성서적 전승에 따르면 다윗 왕은 여러 아내를 취하여(1사무 18:27; 25:39-42; 2사무 11:27) 죄를 지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저질렀다.

CD는 이러한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CD에서는 다윗은 여러 아내를 금지하는 율법의 규정을 알지 못했다.

75년경에 필사되었다. 따라서 CD는 회년서 보다 훨씬 후대에, “정의의 스승”이 죽은 이후에 쓰여졌다.

- 19)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mmortalité, résurrection, vie éternelle? Histoire d'une croyance dans le Judaïsme ancien II* (Paris: Gabalda, 1993), 502.
- 20) J. C. R. de Roo, “David’s Deeds in the Dead Sea Scrolls,” *DSD* 6 (1999), 45.

여러 아내를 가졌던 다윗의 잘못은 그가 “율법의 봉인된 책”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옹호된다.²¹⁾ 그리고 다윗의 행동은 우리야의 죽음 이외에는 모두 탁월했다는 것이다. 다윗은 우리야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와 같이 콤란 사본은 역사적 다윗의 여러 잘못에 대해 재해석을 시도한다. 다윗은 자신의 여러 잘못에도 불구하고,²²⁾ 탁월한 모범으로 제시된다. 콤란-에세네파 공동체는 다윗의 실수와 죄를 완화시키고, 그의 용서와 덕행을 강조함으로써 다윗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여기에 성서적 다윗 전승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이 잘 드러난다.

3.2. 4QMMT

4QMMT는 콤란의 제4동굴에서 발견된 여섯 개의 단편들(4Q394-399)로 구성되어있다. 4QMMT의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기원전 75년경에 필사된 것이고, 가장 나중의 것은 기원 후 50년경에 필사되었다. 이것의 공식판은 스트러그넬(J. Strugnell)과 킴론(E. Qimron)이 1994년 DJD 제10권에 발표했다.²³⁾ 공식판의 발

21) C. A. Evans, “David in the Dead Sea Scrolls,” S. E. Porter and C. A. Evans, eds., *The Scrolls and the Scriptures: Qumran Fifty Years Aft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86; G. J. Brooke, “The Significance of the Kings in 4QMMT,” Z. J. Kapera, ed., *Qumran Cave Four and MMT: Special Report* (Cracow: Enigma, 1991), 111.

22) P. W. Flint, “David,” 179.

23) E. Qimron and J. Strugnell, *The Psalms Scroll of Qumrân Cave 11 (11QP^s)*, DJD X (Oxford: Clarendon Press, 1994); E. Qimron and J. Strugnell, “An Unpublished Halakhic Letter from Qumran,” J. Amitai, ed., *Biblical Archaeology Toda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Biblical Archaeology, Jerusalem, April 1984*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5), 400-407; J. Strugnell, “MMT: Second Thoughts on a Forthcoming Edition,” E. Ulrich and J. C. VanderKam, eds., *The Community of the Renewed Covenant: The Notre Dame Symposium on the Dead*

표자들에게 따르면, 4QMMT는 “정의의 스승”이 “악한 사제”에게 보낸 편지이다. 기원전 159-152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였던 쿨란 공동체의 창설자 “정의의 스승”이 다른 그룹(“너희”-그룹)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우리”-그룹)의 율법 규정 준수를 따르도록 설득하고 있다. 4QMMT에서 “너희”-그룹은 또다시 “당신”과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되는데, 여기서 “당신”은 쿨란 공동체로부터 “악한 사제”로 불려지는 요나단 마카베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4QMMT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윗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적들을 생각하라. 그들 중에 율법을 존중했던 이는 곤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들은 죄를 용서 받았다(4Q398 11-13 23-25). 당신은 다윗을 기억하여라. 그는 경건한 행적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수많은 곤경에서 해방되었고 용서받았다 (4Q398 14-17 ii 25-26).²⁴⁾

4QMMT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으라고 권유하는데, 이러한 언급은 요나단의 정치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4QMMT는 다윗을 기억되어야 할 대상이며, 경건한 행적, 해방과 용서의 모범임을 언급하여 다윗에 대한 재해석을 제시한다.²⁵⁾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윗을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하는 쿨란 사본의 해석학적 태도를 발견한다.

Sea Scroll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57-73.

24) E. Qimron and J. Strugnell, DJD X, 60-63.

25) P. W. Flint, “David,” 179; C. Coulot, “David à Qumrân,” 343.

3.3. 11Q5

다윗의 전승에 대한 재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사본이 11Q5 XXVII 2-11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현명하고 태양 같은 빛이었다. 그는 한 사람의 서기관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별 있고 그의 모든 행동에서 완벽하였다. 주님은 그에게 분별 있고 총명한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3,600편의 시편을 지었다. 1년 364일동안 매일 번제를 위해 제단 앞에서 부를 노래들, 안식일 제물을 위해 52편의 노래, 신월 제물을 위해, 모든 축제일에, 대속죄의 날에 30편의 노래. 그가 지은 노래는 총 446편이었다. 부마자를 대한 노래는 4편이었다. 총 4,050편이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예언을 통하여 그가 말한 것이다.²⁶⁾

첫째, 11Q5의 본문은 다윗을 지혜의 표상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쿵란 사본에서도 매우 드문 해석이다. 다윗은 지혜롭고 태양처럼 빛났다. 그는 완벽한 인물로 소개된다.²⁷⁾

둘째, 11Q5은 다윗을 탁월한 시편 작가로 묘사한다. 이것은 11Q5에 포함된 시편들의 진정성과 권위를 표현한다.²⁸⁾ 이것은 히브리어 성서의 시편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편들의 존재를 가리킨다.²⁹⁾ 즉 다윗은 마소라 본문에 포함된 것 보다 더 많은 시를 지

26) J. A. Sanders, DJD IV, 92.

27) G. J. Brooke, "The Significance of the Kings in 4QMMT," 110.

28) P. W. Flint, "David," 179.

29) M. Delcor, *Les Hymnes de Qumrân* (Paris: Letouzey & Ané, 1962), 301-319; A. Dupont-Sommer, "Psaumes pseudo-davidiques," A. Dupont-Sommer and M. Philonenko, eds.,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Paris: Gallimard, 1987), 303-331; P. W. Flint, *The*

었다는 것이다. 특히 4QMMT(4Q397 14-21; C 9-10)의 표현은 시편을 다윗의 책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썼는데] 당신이 모세의 책[과] [예]언자[의 책들], 그리고 다[윗과] 과거 시대[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다윗이 만든 시편과 노래는 364일로 이루어진 태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편은 축제들에서 불려지고 축제들은 달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11Q5은 다윗이 예언을 통하여 그의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해석한다. 이 사본에서 다윗을 비록 예언자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성령과 예언과 관련시켜 보는 해석학적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다윗은 성령으로 가득 넘쳐 예언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는 구마자로서도 묘사된다. 이와 같이 쿵란 사본에서는 성서적 다윗 전승을 기초로 하여 쿵란-에세네파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된 다윗의 모습이 소개된다.

4. 다윗 전승과 메시아 사상

쿵란 사본에 나타난 다윗 전승은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메시아 사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와 관련된 사본들은 CD VII 15-16, 4Q161, 4QMidEsch, 4Q246, 4Q252, 4Q285 등이다.

4.1. CD VII 14-16

다윗 전승은 쿵란 사본의 메시아 사상에 중요한 요소이다.³⁰⁾ CD VII 14-16에서 아모 5:26-27; 9:11의 구절이 인용되고 해석된다.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Brill, 1997).

30) C. A. Evans, “David in the Dead Sea Scrolls,” 191.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식구의 신상들과 너희의 별 신 기운의 신상들을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율법 책은 왕의 초막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아모 9:11의 다윗의 넘어진 천막의 의미는 CD VII 18-20에서 발견되는 후대의 해석에서 명백하게 된다: “별, 그것은 다마스쿠스로 오실 율법의 해석자이다...왕홀,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우두머리이다.” 이 본문에서 “별”은 대사제로서의 메시아인 “율법의 해석자”이고, “왕홀”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아모스의 예언은 다윗 메시아와 관련된다. 그는 민수 24:17의 왕홀인데 율법의 해석자인 별과 함께 나타난다.

4.2. 4Q161

이사야서의 주해서인 4Q161은³¹⁾ 기원전 1세기 전반부에 필사되었다. 4Q161 7-10 iii 22-29에는 이사 11:1-5을 인용한 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한다. 그는 사체적 메시아와 함께 나타나며, 종말의 승리와 심판을 주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원수들을 [처부수기 위하여] 마치[막 날]에 나타날 다윗의 [후손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용]기의 영으로 그를 지지할 것이다.”

쿰란 공동체의 에세네파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상적인 하느님 백성의 승리라는 예언과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렸다. 이러한 맥락에

31) J. Allegro, “4Q161,” *Qumrân Cave 4. I (4Q158-4Q186)*, DJD V (Oxford: Clarendon, 1968), 11-15; J. Strugnell, “Notes en marge du volume V des DJD,” *RQ 7* (1969-1971), 183-186.

서 쿰란 공동체는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종말론적 전쟁을 이끌 정치적 해방자요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4.3. 4QMidEsch iii 10-12

4Q174³²⁾와 4Q177³³⁾ 사본의 공식판은 알레그로(J.M. Allegro)에 의해 1968년 DJD 5권에 발표되었지만, 사본 해독과 해석에 있어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가졌기 때문에, 스트리그넬이 곧 그 수정을 발표하였다.³⁴⁾ 그런데 슈토이델(A. Steudel)은 이 2개의 사본을 연구한 결과, 이 사본들이 동일한 작품의 서로 다른 복사본임을 제안하였다.³⁵⁾ 그녀는 이 작품을 종말론적 미드라쉬(4QMidEsch)라고 불렀다. 필체 연구에 따르면 4Q174와 4Q177의 서체는 동일하게 고대 헤로데 서체에 속한다.³⁶⁾ 4QMidEsch의 저작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반부로 추정된다.³⁷⁾

4QMidEsch iii 10-12에서 “다윗의 후손”은 대사제로서의 메시아인 “율법의 해석자”와 함께 등장한다. 그리고 2사무 7:11-14의 본문

32) J. M. Allegro, “4Q174(Florilegium),” DJD V (Oxford: Clarendon Press, 1968), 53-57.

33) J. M. Allegro, “4Q177(Catena A),” DJD V(Oxford: Clarendon Press, 1968), 67-74.

34) J. Strugnell, “Notes en marge du volume V des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of Jordan’,” 163-276.

35) A. Steudel, *Der Midrasch zur Eschatologie aus der Qumrangemeinde(4QMidrEsbata.b). Materielle Rekonstruktion, Textbestand, Gattung und Traditionsgeschichtliche Einordnung des durch 4Q174(“Florilegium”) und 4Q177(“Catena A”) repräsentierten Werkes aus den Qumranfunden* (Leiden: Brill, 1991).

36) J. Strugnell, “Notes en marge du volume V des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of Jordan’,” 177.

37) A. Steudel, *Der Midrasch zur Eschatologie aus der Qumrangemeinde*, 315-321.

이 메시아적으로 이해되는데, 메시아는 명시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며, 함축적으로는 “하느님의 아들”로 묘사된다.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선언[하신다.] ‘그는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네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나는 그 통치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는 다윗의 후손인데, 마지막 날[에] 시[온]에 [세울] 율법의 해석자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4.4. 4Q246

아람어 사본인 4Q246의 공식판은 뤼에쉬(É. Puech)가 1996년 DJD에 발표하였다.³⁸⁾ 4Q246은 사본 필체 분석에 따르면 기원전 25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언어적 특성의 연구결과로 보면 쿰란 공동체 이전에 저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본과 다니엘서와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사본은 다니엘서와 비슷한 시기에 저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Q246 ii열은 쿰란 메시아 사상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¹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환시의 유성들처럼 ² 그들의 통치는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³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짓밟을 것입니다. 한 백성이 (다른) 한 백성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방이 (다른) 한 지방을 (짓밟을 것입니다.) ⁴ (여백) 하느님의 백성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가 모두를 칼에서 쉬게 할 때까지. ⁵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의 모든 길들은 진리 안

38) É. Puech, “4QApocryphe de Daniel ar,” É. Puech, et al., *Qumran Cave 4.XVII: Parabiblical Texts, Part 3*, DJD XXII (Oxford: Clarendon, 1996), 165-184.

에 (있습니다.) 그는 심(판)할 것입니다. ⁶ 땅을 진리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이들은 평화로울 것이다. 칼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⁷ 그리고 모든 지방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느님은 그의 힘이십니다. ⁸ 그리고 그분이 그를 위해 전쟁을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 백성들을 그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⁹ 그분은 그의 앞에 내던질 것입니다. 그의 지배는 영원한 지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의] 심연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4Q246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하느님의 아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 부류들 중에는 “하느님의 아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하거나,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종말의 어떤 악한 왕이나 벨리알의 화신 등으로 설명한다. 둘째, “하느님의 아들”을 긍정적으로, 즉 메시아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콜린스(J.J. Collins)는 “하느님 아들”을 “사람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이 융합된 메시아로 해석하고,³⁹⁾ 가르시아 마르티네즈(F. García Martínez)는 천상적 메시아로 이해한다.⁴⁰⁾

4Q246의 해석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이 더 개연성이 높다. 4Q246는 상황묘사와 해석자의 소개(i열 1-3행), 해석의 첫째 부분(i열 4행-ii열 3행), 해석의 둘째 부분(ii열 4-9행) 등으로 구성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 안에서, ii열 1행의 “하느님의 아들”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며, ii열 5행 이하에서 발견되는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 “그의 통치”, “그의 모든 길들”, “그는”, “그에게”, “그의 힘”, “그를 위해”,

39) J. J. Collins, “The Background of the ‘Son of God’ Text,”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7 (1997), 51-62.

40) F. García Martínez, “The Eschatological Figure of 4Q246,” *Qumran and Apocalyptic: Studies on the Aramaic Texts from Qumran* (Leiden: E. J. Brill, 1992), 162-179.

“그의 손에”, “그의 앞에”, “그의 지배”)는 바로 이 메시아를 가리킨다.

4Q246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고대 팔레스티나 유다이즘의 묵시문학적 맥락 안에서 메시아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4Q246이 명시적으로 다윗 전승을 표현하고 있는 누가 1:32-35과 문학적이고 전승사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4.5. 4Q252

1956년 알레그로에 의해 4Q252의 단편 6이 “성조들의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후⁴¹⁾, 이 사본의 공식판은 1996년 DJD 22권에 “창세기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브룩(G. J. Brooke)에 의해 발표되었다.⁴²⁾ 이 사본의 필사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반부로 추정된다.⁴³⁾

창세 49:10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4Q252 V 2-4는 “다윗의 후손”을 언급한다.

왜냐하면 지휘봉, 그것은 왕권의 계약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아들, 그들은 깃발들이다, (여백) 정의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올 때까지.

41) J. M. Allegro, “Further Messianic References in Qumran Literature,” *JBL* 75 (1956), 174-187.

42) G. Brooke, “4Q252(Commentary on Genesis A),” DJD XXII (Oxford: Clarendon, 1996), 185-207.

43) É. Puech, “Messianisme, eschatologie et résurrection dan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RQ* 18 (1997-1998), 276.

4.6. 4Q285

4Q285의 공식판은 알렉산더(P. Alexander)와 베르메쉬(G. Vermes)가 DJD 36권에 출판하였다.⁴⁴⁾ 뷔에쉬는 4Q285의 저작 연대를 늦어도 기원전 1세기 초 내지 2세기 후반으로 추정한다.⁴⁵⁾ 이 사본의 단편 7은 다음과 같다.

¹ 이사야 예언자의 [책에 쓰여진 대로.] ² [“잡목 숲은 쇠도끼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리라.”] ³ [그들은 키팀인데 이스라엘과] 다윗의 자손을 [거슬러 전쟁을 할 것이고] 그들은 ⁴ [민족들의 용사들과] 함께 심판 받을 것이다. [키팀과 그들의 왕은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우두머리인 [다윗의] 후손은 그를 죽일 것이고, ⁵ [그는 키팀을 칠 것이며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⁶ 그리고 [대]사제는 명령을 내리고 [사제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키팀의 [상처 받은 이들...

이 사본에서 “다윗의 후손”과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쿨란 공동체의 두-메시아 사상의 맥락 안에서 종말론적 대사제로서의 메시아와 함께 나타날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킨다. 정치적 메시아는 마지막 날에 적들(=키팀)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메시아이다. 이와 같이 쿨란 공동체의 에세네파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상적인 하느님 백성의 승리라는 예언과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렸다.

44) P. Alexander and G. Vermes, “4Q285,” S. J. Pfann et al., *Qumran Cave 4.XXVI: Cryptic Texts*, DJD XXXVI (Oxford: Clarendon Press, 2000), 228-246.

45) É. Puech, “Messianisme, eschatologie et résurrection dan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274.

5. 콤란과 다윗 전승의 특징

첫째, 콤란 사본에 나타난 다윗 전승은 히브리어 성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다윗과 관련이 있다. 다윗 생애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사무엘에 의한 기름부음, 하느님과 다윗의 언약, 골리앗과의 전투, 예루살렘과 다윗에 관한 것 등이 콤란 사본에서 다루어진다. 이것은 성서적 다윗 전승의 재수룩이다. 우리는 콤란 사본의 성서적 다윗 전승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콤란 사본은 역사적 다윗 전승을 다룰 때 다윗 생애의 초기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콤란 사본에는 왕으로서의 다윗 통치나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콤란 사본의 다윗 전승은 성서적 전승에 대한 재해석이다. 콤란 사본은 역사적 다윗과 관련된 전승을 단순히 재수룩하지 않고 콤란 공동체에 의한 해석학적 작업을 반영한다. 이 작업은 성서적 다윗 전승을 근거로 공동체의 다윗 이해를 고무시키기 위해 특정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CD V 1-6에서는 역사적 다윗의 잘못에 대한 옹호를 시도한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려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CD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을 정당화한다. 다윗은 율법의 봉인된 책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은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야의 일에 대한 잘못도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해석 작업을 통해 CD는 다윗의 행적을 옹호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와 동일한 해석학적 작업이 4QMMT에서도 발견된다. 다윗은 경건한 인물로 묘사되며 그는 용서된다. 그리고 다윗은 기억되어야 하고 본받아야 할 왕의 모델로 묘사된다.

11Q5 사본은 다윗에 대한 재해석 작업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한

다. 이 사본에서 다윗은 지혜의 모범이며, 탁월한 시편 작가이며, 성령에 가득 찬 구마자로서 예언 활동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쿵란-에세네파의 재해석 작업의 결과들을 발견한다.

셋째, 쿵란 사본의 다윗 전승은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메시아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해석학적 작업은 성서적 다윗 전승과 공동체의 재해석과 연결되어 다윗 전승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CD, 1QS, 1QSa 등에서는 정치적 메시아인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사체적 메시아인 “아론의 메시아”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예언서에서 유래한 다른 호칭들이 분명하게 다윗 가문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4Q161 7-10 iii 22; 4QMidEsch iii 11; 4Q252 V 3-4; 4Q285 7 3. 4-5 등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고, 4Q285 7 4에서는 “다윗의 후손”과 동일시되는 “공동체의 우두머리”⁴⁶⁾가 나타난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재건을 위한 경향을 반영한다. 사체적 메시아가 종교적 메시아인 반면, 왕적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키팀에 대항한 종말론적 전쟁을 이끌 정치적 해방자요 민족적 지도자로 묘사된다.

하스모네아 왕조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쿵란 공동체에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호칭은 왕-메시아가 다윗 가문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 호칭은 성서적 전승과는 반대로 권력을 차지한 비-다윗 가문의 하스모네아 권력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었다. 그리고 4Q252 V 3에서 공동체가 기다렸던 “올바른 메시아” 호칭은 법을 어긴 올바르지 못한 하스모네아 권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46) C. A. Evans, “Prince of the Congregation,”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694.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콤란-에세네파는 요나단 마카베오 이후 정치 권력과 대사제직을 모두 차지한 하스모네아 가문에 대한 반발에서 두-메시아 사상을 주장하였다. 이 두-메시아 사상은 왕직과 사제직의 합일을 교정한 것이었다.⁴⁷⁾ 이러한 상황은 성서적 전승에 충실했던 콤란 공동체로 하여금 두-메시아 사상 개념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다.

6. 나오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콤란 사본에 나타난 다양한 다윗 전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콤란 사본의 다윗 전승은 일차적으로 성서적 전승의 재수룩이다. 콤란 공동체는 히브리어 성서가 전하는 다윗 전승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보존한다. 그들은 성서적 다윗 전승의 담지자로서 콤란 사본들에서 역사적 다윗의 여러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콤란 공동체는 성서적 다윗 전승의 단순한 반복 외에 다윗 전승의 재해석을 새로이 시도하였다. 이러한 해석학적 작업은 역사적 다윗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옹호하여, 다윗을 윤리와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성서적 다윗 전승이 새로운 역사적 상황 안에서 재조명되고 재평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성서적 다윗 전승에 대한 콤란 공동체의 재해석 작업은 메시아 사상적 지평 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다윗 전승과 관련된 메시아적 표상의 형성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 작업은 콤란 공동체가 살았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47) C. A. Evans, "Messiah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40.

다윗 전승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쿨란 사본에 나타난 다윗 전승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제2차 성전 시대 유다이즘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서적 전승에 대한 다양한 해석학적 작업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쿨란 공동체의 성서적 다윗 전승에 대한 재해석과 메시아적 해석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해석학적 작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이며,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재해석을 위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

<주요어>

쿨란 사본, 다윗, 다윗 전승, 쿨란 공동체, 메시아 사상

<Key Words>

Qumran Manuscripts, David, Davidic Tradition, Qumran Community, Messianism

참고문헌

- Abegg, M. G., *The Dead Sea Scrolls Concordance, I*, Leiden: Brill, 2003.
- Atkinson, K. R., "On the Herodian Origin of Militant Davidic Messianism at Qumran New Light from Psalm of Solomon 17," *JBL* 118 (1999), 435-460.
- Atkinson, K. R., "On the Use of Scripture in the Development of Militant Davidic Messianism at Qumran: New Light from Psalm of Solomon 17," C. A. Evans, e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Studies in Language and Tradi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06-123.
- Atkinson, K. R., *I Cried to the Lord: A Study of the Psalms of Solomon's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Setting*, Leiden: Brill, 2004.
- Baillet, M., "4Q504 (Paroles des Luminaires)," *Qumran Cave 4.VII: Genesis to Numbers*, DJD VII, Oxford: Clarendon Press, 1982, 137-168.
- Brooke, G. J., "Kingship and Messianism in the Dead Sea Scrolls," J. Day, ed., *King and Messiah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434-455.
- Brooke, G. J., "The Significance of the Kings in 4QMMT," Z. J. Kapera, ed., *Qumran Cave Four and MMT: Special Report*, Cracow: Enigma, 1991, 109-113.
- Coulot, C., "David à Qumrân," L. Desrousseaux and J. Vermeylen, eds., *Figures de David à travers la Bible*, Paris: Cerf, 1999, 315-343.
- de Roo, J. C. R., "David's Deeds in the Dead Sea Scrolls," *DSD* 6 (1999), 44-65.
- Delcor, M., *Les Hymnes de Qumrân*, Paris: Letouzey & Ané, 1962, 301-319.
- Dupont-Sommer, A., "Psaumes pseudo-davidiques," A. Dupont-Sommer and M. Philonenko, eds.,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Paris:

- Gallimard, 1987, 303-331.
- Evans, C. A., "David in the Dead Sea Scrolls," S. E. Porter and C. A. Evans, eds., *The Scrolls and the Scriptures: Qumran Fifty Years Aft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83-197.
- Evans, C. A., "Messiah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37-542.
- Evans, C. A., "Prince of the Congregation,"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693-694
- Flint, P. W., "David,"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78-180.
- Flint, P. W.,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Brill, 1997.
- Howard, Jr., D. M., "David," *ABD* 2 (1992), 41-49.
- Pomykala, K., *The Davidic Tradition in Early Judaism: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for Messianism*,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Puech, É., "4Q522 [Prophétie de Josué (4QApocrJosuéc?)]," *Qumran Cave 4. XVIII: Textes hébreux (4Q521?Q528, 4Q576?Q579)*, DJD XXV, Oxford: Clarendon Press, 1998, 39-74.
- Puech, É., "Fragments du Psaume 122 dans un manuscrit hébreu de la grotte IV," *RQ* 9 (1978), 547-554.
- Puech, É., "La pierre de Sion et l'autel des holocaustes d'après un manuscrit hébreu de la grotte 4 (4Q522)," *RB* 99 (1992), 676-696.
- Puech, É., "Les Esséniens et le temple de Jérusalem," J.-C. Petit, ed., *Où demeures-tu?: La maison depuis le monde biblique. En hommage au*

- professeur Guy Couturier à l'occasion de ses soixante-cinq ans*, Montréal: Fides, 1994, 263-287.
- Puech, É., "Messianisme, eschatologie et résurrection dan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RQ* 18 (1997-1998), 255-298.
- Puech, É.,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mmortalité, résurrection, vie éternelle? Histoire d'une croyance dans le Judaïsme ancien I-II*, Paris: Gabalda, 1993.
- Qimron, E. and Strugnell, J., "An Unpublished Halakhic Letter from Qumran," J. Amitai, ed., *Biblical Archaeology Toda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Biblical Archaeology, Jerusalem, April 1984*,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5, 400-407.
- Qimron, E. and Strugnell, J., *Qumran Cave 4.V: Miqsat Ma'ase ha-Torah*, DJD X,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Sanders, J. A., *The Psalms Scroll of Qumrân Cave 11 (11QP^a)*, DJD IV, Oxford: Clarendon Press, 1965.
- Schechter, S., *Documents of Jewish Sectaries, vol. I. Fragments of a Zadokite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0.
- Schniedewind, W. F., "The Davidic Dynast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Qumran Literature," L. H. Schiffman et al., eds.,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Proceedings of the Jerusalem Congress, July 20-25, 1997*,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82-91.
- Steudel, A., *Der Midrasch zur Eschatologie aus der Qumrangemeinde(4QMidrEschata.b). Materielle Rekonstruktion, Textbestand, Gattung und Traditionsgeschichtliche Einordnung des durch 4Q174("Florilegium") und 4Q177("Catena A") repräsentierten Werkes aus den Qumranfunden*, Leiden: Brill, 1991.
- Strugnell, J., "MMT: Second Thoughts on a Forthcoming Edition," E.

Ulrich and J. C. VanderKam, eds., *The Community of the Renewed Covenant: The Notre Dame Symposium on the Dead Sea Scroll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57-73.

Sukenik, E. L., *The Dead Sea Scrolls of the Hebrew University*, Jerusalem: Hebrew University/Magnes Press, 1955.

Thoma, C., "David II," *TRE* 8 (1981), 384-387.

<초록>

쿰란 사본과 다윗 전승

송창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연구는 쿰란 사본에 나타난 다윗과 관련된 여러 전승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초기 유다이즘의 맥락 안에서 다윗 전승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것이다. 쿰란 사본의 다윗 전승과 성서적 전승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쿰란 사본은 성서적 다윗 전승의 단순한 반복인가? 쿰란 공동체는 성서적 다윗 전승에 재해석하고 새로운 해석학적 전망을 제시하는가?

첫째, 쿰란 사본에 나타난 다윗 전승은 히브리어 성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쿰란 사본은 다윗 생애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사무엘에 의한 기름부음, 하느님과 다윗의 언약, 골리앗과의 전투, 예루살렘과 다윗에 관한 것 등에 대한 역사적 다윗 전승을 다룰 때 다윗 생애의 초기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둘째, 쿰란 사본의 다윗 전승은 성서적 전승에 대한 재해석이다. 쿰란 공동체는 성서적 다윗 전승의 단순한 반복 외에 다윗 전승의 재해석을 새로이 시도하였다. 이러한 해석학적 작업은 역사적 다윗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옹호하여, 다윗을 윤리와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성서적 다윗 전승이 새로운 역사적 상황 안에서 재조명되고 재평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셋째, 성서적 다윗 전승에 대한 쿰란 공동체의 재해석 작업은 메

시아 사상적 지평 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작업은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가진다. 쿰란 공동체의 성서적 다윗 전승에 대한 재해석과 메시아적 해석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해석학적 작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Qumran Manuscripts and the Davidic Tradition

Prof. Chang-Hyun S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various traditions concerning David in the Qumran manuscripts. Especially this study is about the origin and the characters of the Davidic traditions in the context of the Early Judaism. What relationship between the Davidic tradition of Qumran and biblical tradition? Did the Qumran Community simply repeat the Davidic tradition of the Bible? Or did that Community reinterpret the biblical tradition and develop the new hermeneutic perspective?

First, the Qumran manuscripts repeated the tradition or

the historical David in the Hebrew Bible. They treated the various events in the life of David like the anointment by Samuel,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David, the combat with Goliath, David's plan to construct the Temple in Jerusalem.

Second, the Davidic tradition is the reinterpretation on the biblical tradition. The Qumran Community not only repeated the biblical interpretation, but also tried to reinterpret it newly. The purpose of this hermeneutic work was to justify all actions of David and to model David on ideal figure.

Thir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Qumran Community on the biblical tradition is emphasized in the messianic perspective. This hermeneutic work reflects also the criticism against the contemporary political powers. The eschatological and messianic reinterpretation of the Qumran Community provides very important key to understand the hermeneutic works of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